

# 한은 “미국의 무역갈등 재부각 가능성 위험요인”

미·중 무역분쟁 불확실성 다소 완화…그러나 예의 주시  
해외경제포커스…“지정학적 리스크 상시화도 지켜봐야”



한국은행은 미국과 중국, 미국과 EU(유럽연합) 간 무역갈등이 다시 떠오를 가능성을 세계경제의 주요 잠재적 위험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4%포인트(p)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의 갈등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직격탄이다.

12일 한은은 해외경제포커스에서 2020년 이후 글로벌경제 향방을 좌우할 주요 이슈'에서 잠재적 위험요인을 살폈다. 한은은

미·중 간 무역협상에선 중국의 구조적 문제, 미·EU 간 무역관계에선 디지털세 등을 중심으로 갈등이 다시 떠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중 무역분쟁은 오는 15일 1단계 협의에 도달하면서 불확실

성이 다소 완화됐다. 하지만 중국시장 개방, 산업보조금, 국영기업 지원, 지적재산권 등 중국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양국간 견해차는 여전히 큰 상황이다. 또 미국은 여전히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 중이다.

미·EU 간 갈등은 악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지난해 12월2일 프랑스의 디지털세 부과에 맞대응하며 연간 24억달러 규모의 보복관세 예비품목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유럽 국가들이 도입 중인 디지털세는 법인세와는 별도로 IT 기업의 디지털 매출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미국의 EU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부과 여부도 미·EU 간 통상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소다.

한은은 지정학적 리스크의 상시화도 글로벌경제 방향을 틀 수 있는 위험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연초부터 갈등을 빚은 미국과 이란 간 긴장감은 여전히 팽팽한 상황이다. 지난 2018년 5월 미국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와 같은 해 8월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재개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자주 발생

했다. 특히 지난 1월3일 미국의 드론 공격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솔레이마니가 사망하고, 이란이 반격을 하며 한 번씩 치고받았다.

주요국의 정치적 이슈도 주목해야 할 사안이다. 오는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은 선거 결과에 따라 정책 불확실성이 크다. 1월 대만 선거에서 집권당인 민진당이 다시 권력을 잡으면 중국과의 긴장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인도 시민권법 개정은 무슬림의 반정부 시위를 확산할 수 있고, 프랑스 언급 개혁은 각종 반대로 합의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의 외화적 거시정책의 영향으로 커지고 있는 글로벌 부채(매크로 레버리지)도 잠재적 위험이다. 부채 증가는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지만, 과도하면 대내 수요를 제약하고 외부 충격에 발생할 경우 경제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글로벌 부채의 명목 GDP(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은 선진국은 정부부채를 중심으로, 신흥국은 기업부채를 중심으로 증가해 2019년 상반기 중 240%대 초반까지 확대됐다.



'CES 2020' 개막을 하루 앞둔 6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 베이 호텔에서 열린 현대차 미디어데이 뉴스 컨퍼런스에서 참가자들이 현대차와 우버가 함께 만든 개인용 비행체 'S-A1' 모형을 카메라에 담고 있다.

사람을 함께하는 동행  
동행복권

제 893회차 당첨결과 (2020년 1월 11일 추첨)

1 15 17 23 25 41 + 10

순위	당첨계임수	1인당 당첨금액	당첨기준
1등	9	2,377,433,625원	당첨번호 6개 숫자 일치
2등	58	61,485,353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보너스 숫자 일치
3등	2,113	1,687,720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
4등	116,062	50,000원	당첨번호 4개 숫자 일치
5등	1,899,696	5,000원	당첨번호 3개 숫자 일치

당첨 금 지급 기한 : 지금 개시 일로부터 1년 채워 경우 익명업일)

## 신한금융 ‘기발한 광고’ 상생 성과…스타트업 매출 늘었다

스타트업 홍보 지원하는 ‘기발한 광고 프로젝트’ 종료

신한금융그룹이 신한금융의 광고시 간을 스타트업에 빌려주는 ‘기발한 광고’ 프로젝트를 진행한 결과 선정 기업의 월 매출이 증가하는 등 성과를 냈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해 10월16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약 3달간 ‘기발한 광고 프로젝트’를 진행해 일부 기업의 매출이 성장하는 등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12일 밝혔다.

‘기발한 광고’는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기회를 발견하는 광고’의 준말로 신한금융이 대한민국 혁신성장에 앞장서는 국내 스타트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도록 신한금융의 광고 시간을 빌려주는 프로젝트다.

이번 프로젝트는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이 마케팅·홍보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 대표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이디어를 내 시

작하게 됐다. 약 한 달간 응모 기간에 250여개 이상의 스타트업 광고들이 ‘기발한 광고 프로젝트’에 접수됐다.

신한금융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외부 전문 자문기관과 함께 심사를 통해 최종 12개사의 광고·영상부문 6편, 인쇄부문 6편)를 선정했다. 선정된 광고는 기발한 광고 홈페이지에서 공개됐으며 지난달부터 한 달간 유튜브와 SNS 등 디지털 미디어, 주요 일간지 등을 통해 홍보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신한금융은 프로젝트 참여 기업의 광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광고제작 전문가를 투입해 맞춤형 광고 커피 제작을 지원했고, 각 기업에 가장 적합한 광고 노출 매체를 선정하는 작업도 진행했다.

기발한 광고 캠페인을 통해 선



정된 기업들의 매출이 늘었고,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수도 증가했다. 또 1800만회가 넘는 유튜브 광고 조회 수를 기록했으며, 기발한 광고 홈페이지 방문객 수가 22만 명을 넘어선 등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보유한 스타트업들을 대중에게 알리는 성과를 거뒀다.

신한금융은 관계자는 “내국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했다.

뉴스1

“집 살 사람 없어”

강북 매수지수 뚝

서울 강북 지역의 아파트 매수우위지수가 약 4개월 만에 기준선(100) 아래로 떨어졌다.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 는 의미다. 12·16 부동산 대출 규제의 ‘풍선효과’로 강북 중저가 단지 집값이 오를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지만, 아직은 기우로 보인다.

12일 KB국민은행 부동산의 주간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강북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전주 (105.6) 대비 8.1포인트(p) 하락해 97.5를 기록했다. 기준선 (10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9월 셋째 주(91.9) 이후 16주 만이다.

매수우위지수는 부동산 중개업체 900여 곳을 대상으로 주택 매도자와 매수자 중 어느 쪽이 많은지를 조사해 산출하는 지수다. 100을 넘으면 매수자가, 100 미만이면 매도자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12·16 대책 직전인 12월 둘째 주 과열이 극에 달해 매수우위지수가 128.6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대책 이후 매수세가 꺾이면서 매수우위지수는 4주간 (128.6→128.3→108.5→108.5→103.4) 급감했다.

특히 강남(11개구)보다 강북(14개구) 지역 낙폭이 더 크다. 12월 초 133.8까지 매수우위지수가 올랐던 강북은 3주간 가파르게 떨어져 급기야 지난주 기준선이 무너졌다. 12월 초 124.6 고점을 찍었던 강남도 하락해 현재 110.0을 기록 중이다.

KB 관계자는 “대책 영향에 더해 겨울 비수기에 들어서면서 서울 아파트 전반으로 당분간 거래나 매수문의 자체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설(구정)이 지나면서 대책의 영향과 집값 향방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1

#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

